

전남대병원 유치 재점화...나주시 '파격 인센티브' 시사

“전남지역 열악한 의료여건 개선 절호의 기회 될 것”

강인규 시장 ‘최첨단 스마트병원 건립 비전’ 곧 제안

행정·재정적 지원 약속...조만간 구체적 제안 전달

나주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전남대학교병원 유치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병원 유치전 재점화는 지난달 28일 전남대병원 측이 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신축·이전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데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신축 전남대병원 유치는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대학교 병원이 지난 공공성을 고려할 때 새 병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유치는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강 시장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이며, 나주시의 전남대병원 유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말 국가 암센터 기능을 하는 전남대병원 분원을 나주 남평읍에 유치하기 위해 협상을 선점하고 나섰지만 높은 토지 보상 가격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나주시는 과거 전대병원을 화순으로 보낸 유치 실패 사례를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앞서 이미 보여줬다.

지난 2018년 전남대병원 신축·이전 논의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나주시는 병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나주시는 전남대병원 측이 병원건립추진단을 공식 발족한데 주목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토대로 제안서를 수립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번에도 역시 전남 TF팀을 구성하고, 최첨단 스마트병원에 걸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전남대병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나주시가 염두 해 둔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 부지는 광주 남구와 지척인 남평읍과 나주혁신도시 일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KTX나주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국도 1호선과 접속해 있

어 광주뿐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확정되면 종합병원 건립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주가 해남·강진·완도·영암·함평 등 전남 중부지역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인규 시장은 “성공적인 전남대병원 새 병

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이단 집단감염에 광주 선별진료소 '복직'

교회·성인오락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선별진료소에 검사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영락·망월·5·18민주묘지’ 설 연휴 폐쇄

설 명절 기간 광주지역 대표 추모시설인 망월공원묘역과 영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망월공원묘역·영락공원·국립5·18민주묘지는 설 연휴(11~14일) 동안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추모공간을 모두 폐쇄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제외한 기간에는 방문은 가능하지만 제례실과 휴게실은 운영을 하지 않아 제사 등을 지낼 수 없다.

또 실내 추모공간은 50인 이상 출입이 제한되며 1m 이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야외 성묘도 음식물 섭취는 안되며

거리두기는 유지된다.

현재 영락공원 1·2추모관에는 4만5000기, 야외 3만3000기, 망월공원묘역(시립묘지) 4만여기가 안장돼 있다.

추모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성묘를 미리하는 등 성묘객이 분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설연휴(1월24일~27일) 40만명이 다녀간것을 기준으로 추모시설에 수만명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통제불능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추모시설 관계자는 “지난 추석 연휴때도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성묘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광주 고교생 코로나19 잇단 확진 교육계 ‘비상’

방과후수업 송원여성 8명·광덕고 1명

방학기간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는 고교생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새 학기를 준비하는 교육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남구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재학생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달 27일 방과후 수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교사와 해당 학생 가족 등 밀접 접촉 인원 9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또 이들 확진자 중 한 명의 가족이 광주 지

역 집단감염지로 분류된 모 교회에 다녔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 학생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학 중인 만큼 전체 학생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심도 있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서구 광덕고등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의 감염 경로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내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강사는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방과후학교 참여 등을 위해 등교한 1학년 학생 89명, 2학년 185명, 교직원 81명 등 총 35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쳤다. 검사 인원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학생 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